

‘농협보험’ 설립 다시 추진된다

정부 신설방안 논의... 보험업계선 반발

최근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농협보험’ 설립이 다시 추진된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떼어내 앞으로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NH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당초 이 방안은 입법에 고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담겼으나 보험업계가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자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됐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관

회의에서 일단 농협보험 설립은 백지화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보험이 설립되면 농협은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지금은 팔 수 없는 보험 상품을 정부 허가를 받아 추가로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검토되는 방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백지화안(案)의 중간 수준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설립될 NH은행에 대한 ‘방카

슈랑스 룰’ 유예 기간을 당초의 10년보다 줄이고 4천여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규정 등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에 대해 규제 유예 기간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특혜로, 보험시장의 판매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이라는 새 감독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연작특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진 안에 대해 농협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협의안을 농협에 제시하고 그 수용 여부를 임시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협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NH보험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제사업으로 남게 된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8일에서 15일로 늦춰졌다. /연합뉴스



겨울엔 ‘사이버 동물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키즈짱’(http://kids.daum.net)을 통해 추운 날씨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동물 및 공룡 등의 자연박물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직접 ‘다음 키즈짱’의 공룡 사진 서비스를 이용하여 즐거워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공정위가 7일 공개한 새로운 사전 절차 규칙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잠정 부과액이 제외되는 대신 부당이득액, 과

징금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등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 사전 고지제를 도입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전 고지제 운영 과정에

서 과징금 잠정액이 마치 최종 과징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와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최근 6개 역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1조3천억원대의 과징금 산정액을 통보한 뒤 최종적으로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외국인 “사자”... 증시 옛새재 상승

코스피 1,632.65 마감... 연말밸리 기대 고조

국내 증시가 지난주 반등세를 이어가며 옛새재 올라 연말밸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89포인트(0.49%) 오른 1,632.65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 뉴욕증시의 상승과 연말 밸리 기대감에 8.54포인트(0.53%) 오른 1,633.30으로 장을 시작했다. 연말 계속되는 외국인 매수와 개인 및 기관의 매도가 광범히 대결함에 따라 지수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외국인은 이날 2천644억원의 순매수해 지난달 30일부터 6거래일째 ‘바

이 코리아’를 이어갔고 프로그램 매매도 644억원 순매수를 기록해 증시 수급개선에 기여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의 선전이 두드러져 전날보다 3.51% 상승했다. 이

밖에 종이목재, 운수장비 등이 1% 넘는 탄력을 보였고 섬유·의복,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도 비교적 상승폭이 컸다. 반면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의료정밀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41포인트(0.71%) 오른 487.04를 기록, 옛새

재 상승했다. 3.30포인트(0.68%) 오른 486.93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490선에 육박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된 것을 계기로 탄소배출권 관련주인 에코프르가 11.36%, 포후먼이 2.81% 상승했다. 대체에너지가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용원BM(8.04%), 현진소재(7.63%), 태웅(3.15%) 등 풍력주가 급등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생명 장외거래價 100만원 돌파

삼성생명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100만원을 돌파했다. 7일 장외주식거래 전문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은 전거래일보

다 17만5천원(18.42%) 오른 112만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계획을 밝히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53만7천500원과 비교하면 16거래일 만에 109.3%나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특히 액면분할 계획이 발표되고 상장 주관사들이 적어낸 공모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장외사이트인 프리스닥(www.presdaq.co.kr)에서 삼성생명은 112만5천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정몽구 회장 사재 600억 사회 기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사재 60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정 회장은 7일 종가 기준으로 600억 원 상당의 개인 보유 글로벌 주식 51만2천821주를 해비치 재단에 기부했다고 그룹 측이 전했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국민의 성원과 은혜에 보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 회장의 평소 소신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부한 600억원의 해비치 재단을 통해 교통사고 유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소외계층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비치 재단 관계자는 “평소 국민으로부터 받은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정 회장의 소신을 살려 더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부금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대축제

● 행사기간 12월 2, 28일

객실 ₩110,000

조식(아침) 무료

레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한식외국차)

● 행사장: 호텔 대홀 | ● 문의: 02-220-0000

국제보청기

SINCE 199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보입니다. 3. 가격이 안에 들립니다.

www.kjbr.com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